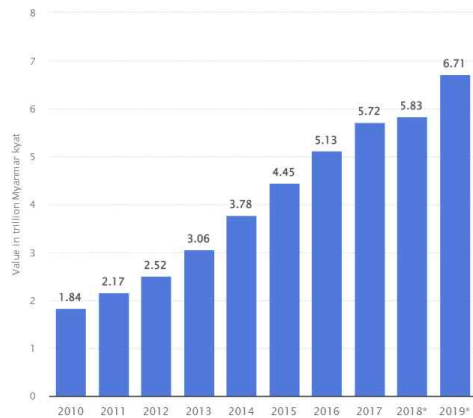


〈국가개요〉

구 분	내 용
국 명	미얀마연방공화국(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위 치	인도차이나 반도 서북부 (태국 · 라오스,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접경)
면 적	676,577km ² (한반도의 약 3배)
기 후	열대성 몬순 기후로 우기(5~10월)와 건기 구분 뚜렷
인 구	약 5,283만 명 (IMF)
주요도시	양곤, 네피도, 만달레이, 빠예인
민 족	버마(68%), 산, 까친, 꺄인, 몬, 친, 라카인 등 135개 민족 출처: 미얀마 정부 공식 발표 기준
언 어	미얀마어(공용어), 기타 소수어
종 교	불교(88%), 기독교(6%), 이슬람교(4%), 토속 신앙(1%) 힌두교(0.5%) 등
정부 형태	대통령중심제 단, 군부도 상당한 권한 보유
위치도	

출처 : National Online Project

- 2016년 기준 미얀마의 도로, 철도, 항만 등 주요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도로의 경우 영국 식민지 통치하에 건설된 남북을 잇는 양곤-만달레이 고속도로는 존재하나 동-서간 도로망은 부실하며 60% 이상이 비포장 도로임 철도시설 또한 매우 낙후됨
 - 이러한 열악한 도로망은 물류수송뿐만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인 운용 및 개발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 철도시설 또한 매우 낙후되어 있어 국토의 효율적 운용 및 개발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 상하수도 인프라 또한 비용 문제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이며 미얀마는 여전히 영국 식민지 시대에 건설된 상하수도 시설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현재 도시 인구 증가로 포화상태임
 - 현재 양곤시의 일일 하수 처리능력은 12,360㎥으로, 약 33만 명 사용분에 불과하며 이는 약 600만 명의 양곤시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
- 수자원 공급의 주된 원천인 미얀마를 관통하여 흐르는 이라와디 강은 북부 산간지대에서 발원하여 북에서 남으로 흐름. 강의 상류로부터 합류된 가축 분뇨 등이 수처리 되지 못해 강의 하류에 위치한 양곤 등 주요 도시들은 매우 위험한 수질의 물을 공급 받고 있으며 이는 수인성 전염병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미얀마 정부는 수처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니세프 등 국제 원조단체와의 협력 아래 2005년부터 하수정화 플랜트사업 및 산간오지 지역에 대한 정화시설 설치사업을 진행하여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이루지 못하였음
- ♦ 미얀마 정부는 2011-2030년을 포괄하는 20년 장기계획인 국가종합개발계획(Nat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이하 NCDP)을 작성하고 있으며, NCDP는 4단계의 5개년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람중심의 개발(people-centered development)’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미얀마 정부는 국가개발의 기본 방향과 분야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경제사회 개혁 기본틀(Framework for Economic and Social Reforms)을 발표하였음.
 - 분야별 개혁과제 중 인프라 개발 관련 내용은 “도시교통체계, 공항시설개선, 상하수도 시설에 단기우선순위 부여, ASEAN 연결성(Connectivity) 마스터플랜에 따라 주변국인 인도, 중국, 태국과의 고속도로 연결, 도시-농촌 간 도로 확충, 정부개혁을 통해 감동부처와 실행부처 분리, 양곤-만달레이-미치나 구간과 바고-몰라마인 구간 철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음



출처: 엠블

[그림] 미얀마 건축 시장의 GDP 기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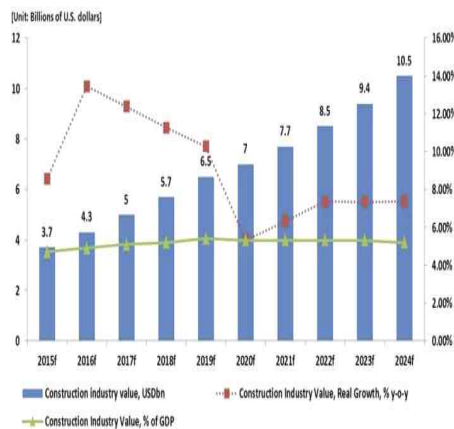


출처: 현대자동차 뉴스룸

[그림] 2011~2021년 미얀마 GDP 성장률

- 2019년까지 미얀마 건축 시장의 GDP 기여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

〈표〉 아세안 10대 건설산업 시장 보유 국가



출처:미얀마 건설사업관리(CM) 공급사업연구(2015/12)

〈그림〉 미얀마 건설 시장 규모 예측

출처: 인도네시아 건설산업의 특징과 우리 기업 진출 시 고려사항(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 2022.09.05

번호	국가	아세안 10개국 건설산업 시장 규모
1	인도네시아	31.8%
2	말레이시아	17.1%
3	베트남	16.7%
4	태국	10.3%
5	필리핀	7.1%
6	싱가포르	6.3%
7	미얀마	3.6%
8	캄보디아	3.1%
9	라오니	2.7%
10	브루나이	1.3%
11	합계	100%

- Business Monitoring International(2015 Q2)자료에 따르면 현지 건설 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 3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024년105억 달러 규모의 건설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미얀마의 건설산업 시장은 아세안 건설시장 비중은 3.6% 싱가포르 다음으로 7위이며 필리핀 시장 규모의 절반임
- 2021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관한 제재로 미얀마 정부 건설 사업 현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양곤, 바고, 에야와디 지역 등 여러곳에서 건설 사업이 중지된 상태임‘

- 미얀마의 도시화는 국가 경제가 농업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 되는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민간부문 참여 유도를 통해 급속한 도시화에 대응 중
- 미얀마의 도시화는 양곤, 만달레이, 네피도 3개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화 대응을 위한 별도의 공간계획 수립 없이 도로망을 따라 산발적으로 도시화가 진행 중
- 도시화 데이터 부족, 도시화로 인한 농촌지역 쇠퇴, 지역간 개발격차, 주택공급부족, 기후변화 등 다양한 도시 문제가 산재하지만, 최종적 정책결정을 위한 기관이나 공청회와 같은 의견수렴 과정이 전무한 상태
- 미얀마 도시 연구 조사에 의하면 도시 거주 인구가 2014년 1450만명에서 2030년 20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도시 개발 계획을 위해서는 연간 70억 달러, 향후 20년간 1460억 달러를 투자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네피도

- 네피도 개발 위원회는 Clean, Green & Smart City 라는 3대 목표를 수립후 이에 맞춘 다양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 중으로 네피도 개발 위원회가 2019년 밝힌 네피도 스마트시티는 퇴직 공무원들을 위한 주택, 스마트 거리 조명 시스템, 도심 수도 공급 시설 건설, 스마트 미터링 시스템을 접목한 위생 관리 시스템, 제로 탄소 도시 목적 달성을 위한 전기 버스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함



출처: <https://news.myantrade.com/archives/25231>

〈그림〉 네피도 분수 공원 조감도



출처: Smart City Action Plans for Nay Pyi Taw

〈그림〉 네피도 ICT 공원 조감도

- 2022년 9월 1일 네피도 개발위원회는 기존의 네피도 분수공원을 스마트 공원으로 업그레이드 개발 사업 계약을 San Myat tun사와 체결하였으며 3년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은 네피도 공원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롤로코스터, 서핑, 인공파도, 모노트레인, 3층 높이의 인공폭포 등 총 48종의 놀이 시설과 체육시설, 식당가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담없는 이용료와 다양한 문화 행사 개최 장소로 기대받고 있음
- 건축 인프라 부문에서는 스마트 조명시스템, 전기버스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시민들의 복지와 교육허브로의 도약을 위해 5개의 종합 대학과 컴퓨터 및 의과 대학, IT 및 교육 R&D 센터들이 입주한 ICT Park를 기획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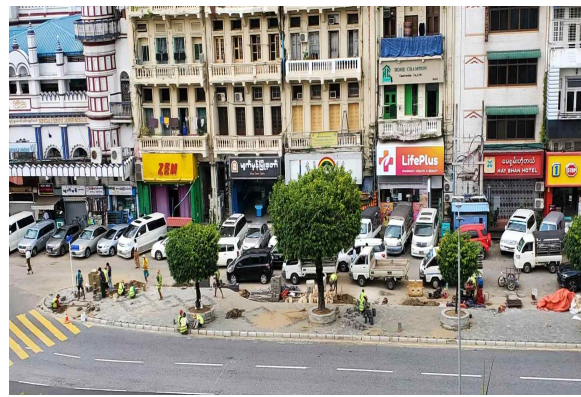
□ 양곤

- 미얀마는 태국 Amata Coporation PCL과 합작 개발하는 2억7천만달러 규모의 Yangon Amata Smart & Eco City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스마트시티 건설은 양곤 Dagon Myothit 동부와 남부 구역에서 이루어질 예정으로 Angon Amata Smart & Eco City 사업은 NLD 정권EO부터 다곤 동부 타운십 2000에이커 부지에서 진행되고 있었으나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선언 이후 태국측에서 전면 중단 후 2022년 11월 1일 다시 재개함



출처: Myanmar DigitalNews

<그림> Angon Amata Smart & Eco City 조감도



출처: Hanoimoi

<그림> 양곤시 보행도로 보수 공사

- 양곤 스마트시티의 비전은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 친환경 기술이 접목된 도시 건설로 주거, 교육, 보건, 비즈니스 및 산업 부문 전반에서 이루어 질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차후 건설 완료시 3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음
- 양곤시는 관광객들에게 도시의 매력을 강조하기위해서 도심 중심지의 인프라 구조물, 거리 풍경 개선사업과 함께 빈 건물을 아울렛과 사무실로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¹⁾

□ 만달레이

- 만달레이시는 시정부차원에서 민간부문 참여를 통해 스마트 폐기물 처리 사업을 레버리지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만달레이 도시 개발 위원회(MDMC)는 2017년 스마트시티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진행중인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 AI 기반 범죄 모니터링 감시 시스템 구축
 - 운영의 가시성과 효율성 개성을 위한 쓰레기 트럭 IOT 차량 관리 시스템
 - RFID 기반 교통 관리 시스템
- 만달레이시는 시내 수백만 대의 오토바이와 부족한 대중교통 실상을 개선하여안전하고 원활하고 안전한 이동이 가능한 도시가 되고자 교통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관계 기관들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²⁾
 - 교통 혼잡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만달레이시는 114개 교차로 중 25개에 태양광 발전패널이 있는 신호등을 설치하였는데 24시간 작동하는 태양광 신호등은 만달레이의 교통 통제시스템을 강화해 교통 정체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음



출처 : SEAN Smart Cities Network Monitoring & Evaluation Report 2022

<그림> 만달레이시 태양광 신호등



출처: <https://www.irrawaddy.com/>

<그림> 만달레이시 지능형
교통 통제 센터

- 1) ASEAN Smart City Planning Guidebook
- 2) ASEAN Smart Cities Network Monitoring & Evaluation Report 2022

- 미얀마정부는 NUP를 통해 2016-17년 미얀마의 도시화 현황을 진단하고, 도출된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가도시정책 프레임워크를 수립
 - 미얀마 정부는 디지털 혁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네피도, 만달레이, 양곤 스마트시티 전략 및 미얀마 NUP 프레임워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스마트시티 전략을 수립함
 - 미얀마 건설부는 수도 네피도, 최대 도시 양곤, 제2 도시 만달레이가 급격한 도시화와 농촌으로부터의 인구유입, 인프라 미정비등으로 재해의 영향에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도시들에대한 개발을 천명하였음

〈표〉 우리나라의 기업이 미얀마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업 사례

구분	주요 내용
LH 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건설 사업	<p>LH는 2017년 미얀마 건설부와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음</p> <p>2370천㎡(약 717천평) 면적의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는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시(인구 약 600만명) 북측 10Km 지점에 위치하고, 미얀마 내 유일한 양곤-네피도(수도)-만달레이(제2도시) 고속도로와 인접하며, 공항은 30분, 항구는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p> <p>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가 개발되면 국내 한계기업(限界企業)이나 중국에 기진출한 한국 기업이 새로이 진출할 경우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고, 한-미얀마 교역 규모 확대 뿐만 아니라 5만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p> <p>하지만 2021년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투자금 송금과 사업 참여 업체인 세아STX엔테크에서 적극적인 개발 사업을 보류 중임</p>



출처: 'LH, 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추진 기반 마련', EBN 산업경제 신문 2020.10.26.

〈그림〉 LH 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위치도



출처: <https://pulsenews.co.kr/>

〈그림〉 LH 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감도